흔히들 독일하면 지루한 클래식 음악이나 목을 긁는 소리들로 가득한 노래들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베토벤, 바흐, 바그너 등 클래식 대가들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나 또한 좋은 노래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 독일어로 된 노래들을 접한 지도 어연 5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내 취향에 맞는 독일어 노래들을 조금씩 찾게 된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3곡을 한 번 소개해보겠다.

1. Liebe zu dritt-Provinz, MAJAN, Jeremias.

<https://youtu.be/lfJ4LMRxuT4?si=ymqZOkMK2-Q8gDk2>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가득한 곡이다.

Wir machen Liebe zu dritt Du und ich und der Sommer

우리 셋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 너와 나 그리고 여름

Doch babe, ich liebe nur dich

하지만 난 너만을 사랑해

Und wenn du magst, dann komm doch mit

너도 좋으면, 날 따라와 줘

뜨거운 한여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이다. 로맨틱한 가사와 신나는 비트가 매우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

“Das Leben ist ein Spiel, wir hab‘n sie abgehängt”

삶은 그저 놀이일 뿐, 애쓸 것 없어

라는 가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땐 걱정과 근심을 덜어놓고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독일의 여름 햇살을 느끼며 일광욕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다.

2. Nur ein Wort-Wir sind Helden

<https://youtu.be/X5kmM98iklo?si=7rr7C5hQotsUiXl_>

Ich sehe, dass du denkst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 지 알아

Ich denke, dass du fühlst

네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Ich fühle, dass du willst

네가 원한다고 느껴져

Aber ich hör dich nicht

그런데 너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

Ich hab mir ein Wörterbuch geliehen

난 사전을 하나 빌려서

Dir A bis Z ins Ohr geschrien

A부터 Z까지 네 귀에 대고 소리쳤어

Ich stapel tausend wirre Worte auf

나는 천개의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렸어  
Die dich am Ärmel ziehen

너를 붙잡을만한 단어들을 말이야

Und wo du hingehen willst

그리고 니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면

Ich häng an deinen Beinen

나는 네 다리를 잡고 매달렸어

Wenn du schon auf den Mund fallen musst

니가 말하기가 싫다면

Warum dann nicht auf meinen

내 입술에 키스만 해주는 건 어떨까

Oh bitte gib mir nur ein Wort

제발 나에게 한 마디만,

Bitte gib mir nur ein Oh

나에게 한 마디만 해줘

Bitte gib mir nur ein

제발 단 한 마디만

Bitte gib mir nur ein Oh

한 마디만 해줘

Es ist verrückt, wie schön du schweigst

니가 이렇게 아름답게 침묵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Wie du dein hübsches Köpfchen neigst

니가 너의 고개를 얼마나 예쁘게 젓는지 말이야  
Und so der ganzen lauten Welt und mir die kalte Schulter zeigst

그리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 무관심한 것도 말이야

Dein Schweigen ist dein Zelt

너의 침묵은 너의 텐트지  
Du stellst es mitten in die Welt

너는 그것을 세상 중심에 세워 뒀어  
Spannst die Schnüre und staunst stumm wenn Nachts ein Mädchen drüber fällt

천막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 놓고는 어느날 밤에 한 소녀가 그 위로 떨어지게 되면 놀라서 바라보지

Zu deinen Füssen red ich mich um Kopf und Kragen

나는 너의 발에다 대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  
Ich will in deine tiefen Wasser große Wellen schlagen

나는 너의 깊은 물속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싶어

In meinem Blut werfen die Endorphine Blasen

내 핏속에는 엔돌핀 방울들이 솟아나고

Wenn hinter deinen stillen Hasenaugen die Gedanken rasen

너의 잔잔한 토끼 같은 눈망울에는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나지

Oh bitte gib mir nur ein Wort

제발 나에게 한 마디만,

Bitte gib mir nur ein Oh

나에게 한 마디만 해줘

Bitte gib mir nur ein

제발 단 한 마디만

Bitte gib mir nur ein Oh

한 마디만 해줘

[출처] 단 한마디, Nur ein Wort ♪|작성자 개래개래갱갱갱

이 노래는 ’Wir sind Helden우리는 영웅들이다‘라는 밴드의 곡이다. 보컬인 Judith Holofernes 유디트 홀로페르네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밴드는 노래를 통해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노래들도 많은데 그러한 노래 중 가장 신나는 노래인 ‘Nur ein Wort’라는 곡을 가져왔다. 직역하자면 ‘단 한 마디’라는 뜻인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표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뱉어내는 서러움의 글로 보았다. 가끔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느낄 수 있어도 확실한 말 한마디가 더욱 더 힘이 될 때가 있다. 말이 주는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 노래이다.

3. Liebe teilen-Lena&Linus, Jeremias&Tym

<https://youtu.be/Aekt3fDCH2s?si=ceicIQFdFcbqMPRz>

Baby, ich würd sagen, komm doch einfach mal vorbei

자기야, 그냥 이리 오라고 말하고 싶어

Auf 'ne kleine Flasche Wein und 'n Jibbit, wenn du magst (ah)

원한다면 작은 와인 한 병과 지빗도

Ich will meine Liebe teil'n heute Nacht

오늘 밤 내 사랑을 말하고 싶어

Ich will meine Liebe teil'n heute Nacht (meine Liebe teil'n)

오늘 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이 노래는 내가 처음으로 ‘독일어 노래도 이렇게 잔잔한 인디느낌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곡이다. 잔잔한 멜로디와와 마치 랩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가사의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독일어의 센 발음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은 곡이라 잔잔한 부분만 눈을 감고 들으면 영어 팝송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밤 산책에 하면서 듣는 걸 추천드린다!

독일어는 발음이 억세고 입문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독일노래 중에도 명곡이 많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독일어에는 Ohr’귀‘+Wurm‘벌레’ 두 단어가 합쳐져, ’귓 속의 벌레‘라는 뜻을 가진 Ohrwurm이라는 합성어가 있다. 한 번 들은 음악이 머릿 속에서 하루종일 맴돌 때, 혹은 계속 흥얼거리게 하는 음악들을 지칭한다. 개인적으로 독일어 노래 중엔 중독성이 강한 Ohrwurm 노래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추천한 노래들 꼭 감상하시길 바라며 독일 노래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